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어김없이 오리라

신윤식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 삶이라지만
소망을 품고 있어
살아볼만한 삶으로
둥글둥글 익어가는 거란다.

파랗게 생생한 잎사귀들도
바람에 등 떠밀려
지고 말 낙엽들이니
쌓이는 노란 아쉬움 났으며
제대로 길을 걷는 거란다.

쓸쓸한 가슴이어 고독을 부르고
과거 속의 꽃잎
추억으로 나폴 거리다
지쳐 땅에 내려놓는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 세상이라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오는 거란다.
그렇게 기다리는 날은
어김없이 오는 거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9.8

발행호수 제21권 36호

잔 치와 연관된 예수
님 말씀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
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합
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잔치 자리는 청함 받은 자
가 높임 받거나 돋보이는
자리가 아님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은 잔치에 벗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
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의 사람들은
값을 수 있고 후자의 사람들은 값을 수가 없기 때문입
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잔치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
습니다. 그것은 잔치는 오직 베푸는 것이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삶을 현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증거 되는 천국의 삶이란 천국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높임 받거나 돋보이
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며, 보답을 받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오로지 베푸시는 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여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은 천국의 현재적 삶이 어떤 것인
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에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고 높임 받기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
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
일 규례에 매인 바리새인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
한다는 것도 천국의 삶에 어긋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
다. 나를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값음이 되기
위해 인생을 바쳐 헌신한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천국
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값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을 잔치에 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들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이며 맹인들이
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현재적
삶은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 값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주일오전설교
눅 14:15-24

청함 받은 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비유로 하시는 것일까
요? 그것은 눅 8: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기 위한 용도인 것입니
다. 따라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
의 시각에 따른 왜곡된 해석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본문 역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은 23절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 내용을 전도하여 예배당을 채우
라는 의미로 해석 합니다. 교회 부흥에 마음을 뺀 사
람들에게는 아마 본문에서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를 잔치에 청하는 것으로, 전도했을
때 거절하는 것을 청함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래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강제로라도 데려
와서 예배당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
석은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한 왜곡된 해석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한
내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배당을 말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강권하여 데
려다가 채우라고 하신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예배당을 사람으로 채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다면 전도
하여 채워야 할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
회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예
수님 말씀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다는 교회 부흥이라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몰두한 모습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
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것이 빌미
가 되어 이어집니다. ‘떡을 먹는 자’ 는 ‘초대 된
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무릇 하
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는 복되다’ 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을 ‘함께 먹고 있던 사람’ 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3절)**는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될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 한다면 그 대상은 예수님이 청하라고 한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며 신앙적으로 성실히 살고 있다고 여기는 자신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아무리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과 같은 사람들 편을 든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 떡을 먹을 복된 사람은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처럼 규례를 지키며 열심히 신앙 생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채우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잔치 시간이 되어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절한 이유는 밭을 사서 나가뵈야 한다는 것이고, 소 다섯 겨리(열 마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고, 장가들어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 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드는 일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이루는 일입니다. 일단 밭을 사고 소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장가들기 위해서도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위해 오랜 시간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획을 이루었다면 마음이 많이 설렐 것입니다. 때문에 잔치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해서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고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대로 했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고 합니다.

이렇게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주인이 잔치에 채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잔치에 청함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한 것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함을 사양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권하여 데려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 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즉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유대인이 베푼 잔치에 청함 받았을 때 선뜻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인 나를 잔치에 오라고 청할 수 있지’ 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사양했을 것입니다. 것처럼 자기 신분을 알고 사양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어코 데려오라는 것을 강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청함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 같은 자를 청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청함을 받을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 다. 때문에 자신을 청한 주인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히 청함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을 하나님 나라 잔치

에 당연히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여김으로 잔치에 청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자로 드러냄으로써 이 같은 사람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청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주인이 베푸는 잔치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와대 만찬에 청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발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야 한다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장가가는 날 까지 변경하면서 참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찬에 청함 받은 것 자체부터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은 자신이 도무지 청와대 만찬에 청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면 외적으로는 훌륭한 교회로 부각될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그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함보다는 서로가 자신을 높은 자로 여기며 '나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청한 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청함을 받았으니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로 규정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기독교인은 신앙을 외적인 열심에서 찾습니다. 열심이 있을수록 천국이 당연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잔치에 청한 주인에 대한 감사함은 자기 의에 묻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의가 중심되어 나 같은 자를 청한 주인에 대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을 천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을 세상 일보다는 교회 일에 더 힘쓰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야 천국에 들어가고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먼지만큼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소유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처럼 자기 의와 단절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러한 비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의 수준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예수님의 의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많이 들어서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 내용일 뿐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강권해서 데려오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열심을 근거 삼아 더 큰 상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것을 나 같은 자를 잔치에 청하시고, 강권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 양과 삶이 하나 되어 있다고 할 때 대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적 모습들이 실천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적 삶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신앙을 그렇게 말하지

주일오우설교

시 129:1-8

여호와의 의

(133강 8.11일 설교)

않습니다.

시 46: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도 이방인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심으로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자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붙드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삶과 일치되어 나타난다면 과연 그 삶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묵상해야 할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29편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역시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어떠한가는 **“발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3절)**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아마 등에 채찍 맞은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에 채찍을 맞으면 살이 패이면서 채찍 자국이 길게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는 일이 주로 노예에게 해당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9편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회상하거나 또는 바벨론에 포로 되어 노예로 생활했을 때를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셔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정성과 열심입니다. 즉 어

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신앙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성과 열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근거로 해서 도울 자를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인간의 정성과 열심히 개입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하나 됨을 인간의 정성과 열심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4,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하신 근거를 여호와와 의로우심에 두고 있습니다.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물러가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동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건짐을 받았다면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면 애당초 어려운 형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빛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4절의 내용을 좀 더 주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와 의의로우심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줄을 끊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으로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는 시편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인의 줄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박탈하고 악인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줄을 끊으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악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여호와와 의로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에 붙들려 고통 가운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와의 의입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시온을 굴복시키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지붕의 풀과 같은 존재여서 자라기 전에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의를 믿고 신뢰하는 신자는 땅의 것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악인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같은 은총의 세계로 인도받은 것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다거나 축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와의 의를 아는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의 세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삶의 하나 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양함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 먹이고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의를 알고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신뢰에서 삶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배우며 누려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라바로 도망쳤지만 추격한 군대에 의해 결국 붙들려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와 심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족까지 죽입니다.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합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또한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김으로 유다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에 의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신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답게 드러나는 것이 유다의 역할이지만 유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부수고 새롭게 세워서서 담고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실상은 유다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란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도구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 본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 된 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은 신자는 자신을 나타내는 길로 가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둬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일을 도우시는 것으로 연결하

수요일설교

렘 39:1-10

멸망과 구원

(90장 8.28일 설교)

여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 된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의 의미는 보지 못하는 소경의 상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시드기야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눈이 뽑히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시드기야의 처지는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가 겪는 처지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만 발견했다면 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것이고 멸망에서도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불쌍한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굳이 이방 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실상은 말씀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둔 것은 악한 일이라고 권함으로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벳멜렉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에벳멜렉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성품이 포악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신가를 몰랐던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살리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38,39장에서 잠깐 등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유다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

사한 사람이라면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벳멜렉을 제외하고 모든 유다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에벳멜렉을 세워서 심판에서 구원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다 사람들을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에벳멜렉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고 말합니다.

에벳멜렉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너를 믿었음이라’는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믿었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부했던 유다가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유다의 믿음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에벳멜렉의 믿음은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을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에벳멜렉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심판이 당연한 죄인으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임을 직시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을 의가 아닌 죄로 여기게 됩니다.

유다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멸망은 죽음이라는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죽음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9장
 교 독 : 4(시5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285장
 성 경 : 눅 14:15-24
 말 씀 : 청함 받은 자(7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19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81장
 기 도 : 장영숙 집사
 찬 송 : 415장
 성 경 : 시 133:1-3
 말 씀 : 영생의 복(13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8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1강)

■ 교회소식 ■

1. 재건교회 95회 총회가 23일(월)오후 7시에 광주재건교회당에서 열립니다.

●
 다함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이경숙 집사

이단 ④

이들의 구원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완전성에 관한 교리다. 이들은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하나님도 인간으로 지상에 살다가 죽어 부활한 후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완전에 이르는 길'의 교리의 근원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완전성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요 10:34,35)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시 82:6절을 인용한 말씀이며 믿는 자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한 '신'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를 지칭한다. 그것이 82편의 내용이다. 강력한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던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 82:7절에서 다른 사람처럼 죽을 뿐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참된 신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모든 인간은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말씀이 주어졌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몰몬교가 구원을 하나님 같이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이단의 특징 중 하나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했던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4,5)이다. 사탄은 인간에게 죽지 않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준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같이 신이 된다는 몰몬교의 교리는 사탄의 교리일 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교리를 보면 오직 인간 구원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복음도 그 모두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자신들을 구원하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만 여긴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은 이들 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인간을 위해 주신 것으로 해석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건강의 원리로써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셨다고 하면서 지혜의 말씀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악한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과 물질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이들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따라 사용해서는 안되는 해로운 물질로 '발법 약물' '담배' '알코올성 음료' '커피' '녹차, 홍차' 등으로 규정한다. 모두가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다.